

변호사시험 합격기
(제3회(2014년도) 변호사시험 최연소 합격)

R=VD 그리고 새로운 도전

- 1992년 2월 생
- 창원초등학교 졸업(2004년)
- 고입검정고시 합격(2006년 5월)
- 대입검정고시 합격(2006년 9월)
- 인제대학교 법학과 졸업(2011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4년)
- 제3회(2014년도) 변호사시험 최연소 합격
- 현 법무법인 금강 실무수습 중



이 미 나

I. 들어가며

어느새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R=VD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2010년 말 전국 최연소로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작성한 합격수기의 타이틀이었습니다. R=VD(Realization=Vivid Dream)공식은 "간절히 생생하게 꿈꾼다면 그 꿈은 현실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연소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다시 한 번 최연소로 제3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다니.. 3년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절히 생생하게 꿈꾼다면 정말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봅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67.6%. 지난해보다 7%포인트 가량 떨어지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 비하여 67.6%의 합격률은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라는 쉽지 않은 문턱을 넘어 3년간 치열하게 공부해온 학생들에게는 감히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들도 R=VD공식, 간절히 생생하게 꿈꾼다면 반드시 꿈은 현실로 될 것이라는 공식을 따른다면 분명 어떤 꿈이든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실력이 월등히 높지는 않지만 가장 어린 나이에 제3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평범한 변호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부터 제3회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까지 약간의 팁을 기술해보려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초 제4회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을 제 사랑하는 동기들과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I. 마음가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은 이미 쉽지 않은 문턱이 되었습니다. 제3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몇몇 수험생들이 다른 시험보다는 비교적 높은 합격률에 방심하여 수험공부에만 올인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았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디.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R=VD공식에서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생생하게 꿈꾸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자신의 목표나 꿈을 이루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조생활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장 아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에 임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가장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저를 성실하게 만들었고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만의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공부하셔서 합격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소한 것들부터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험방법이라고 봅니다.

III. 공부방법 Tip

1. 서론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낸 3년, 약 1095일중 약 60일은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토론한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는 선배들에게 깨알같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학점을 잘 받는 팁이 무엇인지, 어떤 교재가 좋은지, 각 각의 시험공부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등을 물어보고 대화하는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 시험을 치루기까지 선배·동기·후배와 연속적으로 간간히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어느 방법이 좋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이를 잘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부 방법 중 저에게 Tip이 되었던 부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목별로 기본서 1권 문제집 1권만 있어도 충분하다!

지금은 자신 있게 저의 공부 방법 Tip도 알려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법학 공부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양이 너무 방대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까지는 과목별로 기본서 1권만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보고 감을 잡기 위해 문제집을 종종 곁들여 봤습니다. 즉, 같은 책을 계속해서 질릴 때 까지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책을 계속해서 돌려보고 점차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떠올리면 책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것까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좋은 자료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모든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개정이 되어도 개정된 부분만 복사해서 봐도 되기 때문에 교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내용이(편집 형식이 다 달라 내용이 명확히 머릿속에서 정리 되지 않음) 분산되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서를 잘 선택하시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잘 정리하여 단권화 시킨다면 그 자료가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3. 항상 키포인트로 정리하며 공부하자!

법학학문의 특성중 하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므로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논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논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논점을 공략하기 전 항상 큰 틀에서 체계를 잡아야 하여야 하며, 논점에서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구를 키포인트로 정리하면서 숙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판례의 경우 문구 자체를 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위가 너무 많아 많은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논점과 키포인트 단어를 숙지하려고 하는 것이 비교적 효율적입니다. 또한 키포인트 단어를 논점과 연결시켜 암기하면 나중에 그 논점이 문제가 되었을 때 키포인트 단어만 생각해내면 그 부분의 내용 전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단권화 시키면서 키포인트에만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빠르게 단어만 인지하면서 보는 방법도 전체적 내용을 훑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자기 스스로 최고의 정리 자료를 만들자!

저는 주교재를 반복해서 보면서 초반에는 중요부분에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단권화 시키고, 2학년 말부터는 문제로 출제될 경우 답안지에 현출하여야 하는 부분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 단권화 시켰으며, 3학년 초부터 답안지에 현출하여야 하는 부분을 공책에 직접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기본서로 최종 자료를

만들었으므로 내용이 익숙하여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았고 3학년 여름방학쯤 정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정리 자료를 완성한 후에는 정리 자료만 반복해서 보았고, 정리 자료를 보다가 내용이 떠오르지 않거나 너무 단축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기본서로 다시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직접 정리한 자료는 암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한 과목 전체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체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하는데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각 과목에 대한 논리 체계가 잘 잡힙니다.

5. 실무수업을 잘 공략하라!

검찰실무 및 재판실무와 같은 실무수업은 반드시 수강을 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실무수업에서는 실체법과 소송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무수업에서는 중요한 논점에 대한 실제 기록을 검토하고 사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므로 사례형과 기록형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공부하여 쌓아온 지식들을 실무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법률문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어 사례형 및 기록형의 실력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재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6. 실무수습을 통해 실무감각을 익혀라!

많은 양의 기본서 내용을 공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생각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가 쉽기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암기하기가 어렵고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2학년 여름방학부터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1년 반 동안 충분히 기본서 내용을 숙지하고 실무수습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제주지방법원 기본·심화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의 실습과정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숙지해온 기본서 내용을 더욱 심도 깊게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한층 기본서 내용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공부의 효율도 높아졌으며, 한 번 다뤄본 사건에서 논점이 된 내용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실무수습을 잘 활용하여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면 깊이 있는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법학지식을 이용하여 실제 사례에 접목해 봄으로써 수험생활에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었습니다.

7. 수험생활에 즐겁게 임하라!

돌이켜 보면, 3년 동안의 수험생활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교수님·선배·동기·후배들과 함께 수험생활을 해서인지 즐거웠던 기억도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수업을 듣고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변호사 시험 준비로 채워지는 바쁜 일상이지만, 자신을 법률 전문가로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과정임을 늘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수험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수험생활 중간 중간 스트레스를 풀어 주고 자신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제때에 풀어주지 못하면 슬럼프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저는 2~3일에 한번 시내에 나가서 밥을 먹고 잠깐씩 철권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고, 1주~2주에 한번씩 시외로 나가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었습니다.

IV. 변호사시험 Tip

1. 사전에 편안한 숙소를 마련할 것

변호사 시험은 5일 동안 치러지므로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3년간의 힘든 수험기간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험이며, 실질적으로 4일 동안 시험을 치면서 자신이 쌓아온 실력을 모두 발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기간의 컨디션이 시험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 장소가 권역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게 되는 수험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대전으로 가 충남대에서 시험을 쳤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기숙사 협의 같은 사항을 잘 이용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질이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장도 많이 되는 시기에 타 지역으로 가면 낯선 곳에서 해매기 쉬운데, 기숙사를 이용하면 동기들과 교류하기가 쉽고 일정을 맞춰서 같이 다닐 수도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이 됩니다. 수험생들이 느끼는 변호사 시험장에서의 긴장감은 감히 이루어 말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시험 기간 동안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것

변호사 시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각 과목마다 1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저는 수험생들이 잠을 충분히 잘 것을 권고합니다. 변호사 시험의 특성은 하루에도 시험시간이 굉장히 길고(10시부터 저녁 6시) 보통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3가지 유형의 시험을 친다는 것인데, 이 시험들을 잘 치기 위해서는 신속

성 및 정확성 그리고 순발력이 요구됩니다. 문제를 두 번 읽을 시간조차 없고 한 번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논점을 찾아내 빠른 시간 내 기술해야 하므로 두뇌회전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잠을 설치가며 부족한 점을 메꾸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훑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문제가 많은 문항으로 분설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문제마다 중요한 부분의 논점을 빨리 캐치하여 기술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3. 비상약을 구비할 것

시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대비하여 비상약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법과 형사법 시험을 치고 나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너무 심해 쉬는 날에 손목을 전혀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마트에 가서 파스를 사왔습니다. 근처에 약국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찾기도 어려울 수 있고 소중한 시간도 소비하게 되니 꼭 비상약을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4. 최대한 긴장을 풀어 줄 것

변호사 시험 전 수험생들은 극도의 긴장상태가 되므로 위염 및 몸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겨울에 감기에 걸려 고생한 수험생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최대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 도중 긴장감으로 인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객관식의 답안지 마킹에 실수하여 0점 처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편안하기 힘들지만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날 공법 객관식 시험지를 보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로 '긴장하지 말자, 열심히 공부했으니 아는 것만 잘 작성하자'고 주문을 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하나씩 치러나가니 긴장감도 조금씩 낮아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초코렛이나 커피 등을 가져가도 되니 하나씩 드시고 긴장을 풀어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V. 마치면서

글을 쓰면서도 사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누구든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수험생활을 즐겁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식상하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어린나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법률적 지식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수험생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자기 자신

에게 포상도 쥐 가면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수험생활에 임하셔서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고향인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 금강에서 실무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실무수습을 하기 직전 정말 기대도 많이 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진정한 변호사로서 거듭나기 위해 사회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해나가는 일이 너무나 즐겁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하였을 때는 전문가로서 혼자 헤쳐나아가야 할 과제들이 주어져 있어 한편으로는 동기들과 함께 수험생활을 했던 시절이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정이 참 힘든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전문 법률가로서 갖춰야 하는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교수님·선배·동기·후배와 부대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 어리고 장난기 많은 학생을 지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부찬 교수님, 한상수 교수님, 공부하는 조카 기 안 죽게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던 작은 삼촌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